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응식

보성군, 여자만 벌교갯벌 '해양테마공원' 조성 박차

갈대탐방로·에코센터·탐방데크 등 2020년 완공 목표

보성군은 세계 랍사르협약 보전습지로 등록된 벌교갯벌과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갈대군락지를 배경으로 '해양테마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벌교갯벌은 2006년 국내 최초 세계랍사르 협약 보전습지로 등록된 세계적인 보물로서 우수한 벌교와 생태환경이 건강하여 먹이자원이 풍부하고 여러 수산생물과 철새 등이 찾아오고 있다.

특히, 연안습지의 갈대군락지는 자연경관이 살아 있고 잘 보존되어 있어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군은 여자만 일원에 90억 원을 투자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갈

대탐방로 2,870m, 에코센터 600㎡, 휴게쉼터 400㎡, 전망대, 갯벌 탐방데크 등 해양테마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1단계 사업으로 추진중인 갈대탐방로 및 목교 설치의 지난 3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 완공될 예정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단계 사업으로는 에코센터, 휴게쉼터, 갯벌탐방로 등을 2020년 까지 설치해 지역문화와 관광, 생물다양성 등의 가치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벌교라는 지역성과 여자인이 갖는 특별함을 갯골의 형태에 따라 '자연만곡', '바람만곡',

'소리만곡'으로 이름지어 인문화를 더한 차별화된 스토리로 환경 및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해양테마공원이 조성되면 인근 중도방죽, 태백산맥테마파크와 연계한 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로 해양관광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벌교갯벌과 갈대군락지의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주는 다양한 볼거리와 감동이 전해지는 공간으로 조성해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영광군, 해안가 솔껍질각지벌레 방제사업 적기 실시

염산면 백바위해수욕장 주변 20ha 소나무림



영광군은 지난달부터 12월중순까지 군민의 행복한 쉼터이며 관광지인 염산면 두우리 백바위해수욕장 주변 20ha 소나무림에 대하여 겨울철 고사현상을 막기 위해 나무주사 등 솔껍질각지벌레 방제사업을 실시했다.

영광군 등 전남서남부 해안가 소나무는 조선시대부터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철이면 바다 풍경, 하얀 눈과 함께 어

우러진 광경은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고온과 가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동면기인 겨울에도 높은 기온 때문에 왕성한 생명활동을 통해 수분 부족으로 병충해에 대한 내성을 잃고 말라죽어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차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군에서는 솔껍질각지벌레

방제사업을 실시하여 각종 소나무류 병해충을 초기단계부터 원천봉쇄 및 박멸함으로써 아름다운 해안가 산림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광자원으로서 보존되도록 하였다.

이번 솔껍질각지벌레 방제사업의 효과는 이외에도 봄철(5월) 송화가루를 통해 대규모 천일염생산지역인 우리군 소금이 명품이 되도록 일조하는 효과도 있다. 송화가루는 사람의 혈관에 탄력을 유지하여 혈액순환이 원활 하도록 하고 비타민B의 기능을 보강하여 항균 작용을 하게하는 비타민B의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중에는 홍농 가미해수욕장과 칠곡리 해안가 소나무림 20ha에 대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도 실시하였는데 2018년도에도 계속해서 백수해안도로주변 및 해안가 소나무림 40ha에 대한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각지벌레 방제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 수료식 가져

10개월 전문교육 이수한 27명 농촌정착 실행



구례군은 지난 20일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이하 체류형센터)에서 군수, 교육생,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3월 2일 입학하여 10개월간의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한 25세대 27명의 교육생은 앞으로 정착하고 싶은 지역에서 신규 농업인으로서 포부와 자신감을 갖고 영농을 실행하게 된다.

서기동 군수는 "지난 10개월간 녹록지 않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귀농·귀촌의 초석을 다져온 여러분들의 수료식을 축하한다"며, "수료생들이 구례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장성군, '축령산 재창조 사업' 운곽 드러났다

휴양·치유 공간으로 개발해 지역관광자원 활용 극대화

'치유의 숲' 장성 축령산의 개발이 포함돼 있는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사업은 지난 7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운영 지역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백두대간 서남권에 위치한 노령산맥(내장산~방장산~문수산~축령산)의 산림자원을 휴양·치유벨트로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 프로젝트다. 축령산 편백숲 등 우수 산림자원을 산림휴양·치유공간으로 재창조해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사업 계획에 따라 내년부

터 2022년까지 5년간 90억원을 투입해 산림 치유시설·공간을 확충·개선해 장애인·노약자 등의 접근성 및 안전성을 높이는 사업을 벌인다.

또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장애 숲길(8km) 및 산림 치유공간 2개소를 확충한다. 누구나 '치유의 숲'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 진입로 일부 구간과 숲길에 무장애 데크로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우천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대피소도 새로 만들어진다. 이용객들의 휴게·안전·편의를 위해 주요 이용구간에 대피소 5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장애인과 노약

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해 '치유의 숲' 경계 지점에 주차장 1개소도 새로 만들 예정이다.

장성군의 대표적 명산인 축령산은 '태백산맥' 내 마음의 풍금 '쌍화점' 왕조 '태왕사신기' 등 유명 영화·드라마가 배경으로 삼을 정도로 아름다운 산이다.

축령산은 2010년 산림청으로부터 '치유의 숲'으로 지정됐다. 장성군에서는 지난해엔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열린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에서 축령산 일대가 편백힐링 특구로 지정되어 축령산 일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주민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장성=반정모 기자

신안군,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준공



대과 포장 현대화시설 구축

신안군 임지농협(조합장 김대현)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준공식이 19일 신안군수를 비롯한 농업관련 기관·단체, 농산물 물류업체 바이어, 지역주민 등 200명이 참석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은 임지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내에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서 대과 포장 현대화 시설을 구축하고 그 시설을 활용하여 연간 1,500톤을 가

공 처리하면서 3,6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길호 신안군수는 축사를 통해 "신안 대과는 전국 최대의 주산지(1,500ha)로써 연간 5만 2천톤을 생산하여 824억원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효자산업으로 앞으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특화된 대과산업의 기반 구축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소득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신안=박응식 기자

함평군, 전남도 양성평등 추진 평가 우수기관 선정

함평군이 21일 순천만국가정원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여성정책워크숍에서 전남도 양성평등 추진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함평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과 교육이수율, 분석평가 우수

사례, 여성지위향상 등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응해 여성참여율 확대에 노력한 결과 전년 대비 15.8%를 끌어올려 34.7%를 달성했다.

군은 앞으로 위촉직 여성위원 참

여율을 더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여성인재 발굴, 여성대표성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시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광주형 일자리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

광주광역시
GWANGJU CITY